Spot Brief
뉴스코멘트

2013/06/26

은행업

|은행/카드| 황석규 3771-9626
hwangsk@iprovest.com

우리금융 민영화: 교보생명 참여로 흥행가능성 높아짐

- 교보생명이라는 유력한 경쟁후보 참여로 우리금융 민영화의 흥행 가능성 높아짐
- 교보생명이 우리은행을 인수할 경우 메가뱅크와 관련된 부정적 이슈가 많이 희석되는 장점
- 미국과 중국 문제로 최근 주식시장 폭락. 은행주도 하락했으나 과거처럼 낙폭이 가장 크지는 않음. 이는 PBR이 0.56배로 박스권 하단 뚫어 하방경직성 존재하기 때문임
- 은행주 주가동인은 우리금융 민영화. 이에 따라 추천종목: BS금융, DGB금융
- 우리금융은 우리금융 매각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단기 유망종목, if not 당장의 매력도는 낮음

교보생명 우리금융 매각 경쟁에 참여가능성 높아짐

경제지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우리금융 민영화와 관련하여 우리은행 인수, 또는 경남은행·광주은행 인수 등 각종 매물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력한 경쟁후보 참여로 우리금융 민영화의 흥행 가능성 높아짐

금일(6/26일) 공자위가 우리금융 민영화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과 방식을 발표할 예정인데, 우리금융에 대한 유력한 인수 주체가 추가됨에 따라 우리금융 민영화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지방은행이나 증권 자회사 등과는 달리 뚜렷한 경쟁후보가 KB금융 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던 우리은행의 경우 교보생명의 참여로 유효경쟁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보생명이 우리은행을 인수할 경우 메가뱅크와 관련된 부정적 이슈가 많이 희석되는 장점이 있음

당사는 우리금융 민영화와 관련하여 우리투자증권 → 지방은행(경남, 광주) → 우리금융(우리은행으로 전환) 순서로 매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금융의 경우 강력한 인수 후보 제한적이기 때문에 매각 흥행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다. 그런데 이번 교보생명 참여로 매각 가능성이 이전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우리은행을 교보생명이 인수할 경우 중복 점포에 대한 문제나 노조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KB금융이 인수하는 것보다는 인수 자체가 수월하게 진행될 여지도 높아 우리금융에 대한 관심이 주목된다.

미국과 중국 문제로 최근 주식시장 폭락
은행주도 하락했으나 과거처럼 낙폭이 가장 크지는 않음
PBR 박스권 하단 뚫어 0.56배 기록 중

최근 미국 양적완화 조기축소 가능성과 중국의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주식시장이 5영업일동안 6.3% 하락하는 동안 은행주도 6.8% 하락하면서 KOSPI 수준의 하락을 겪고 있다.

그런데 과거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할 경우 은행주의 낙폭이 가장 큰 축에 속했으나, 최근에는 가장 낙폭 과다 업종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은행주 PBR이 박스권 하단인 0.57배를 하회한 0.56배를 기록하고 있어 하방경직성을 보이고 있고, 은행주에 대한 추가적인 외국인 이탈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1개월 기준으로는 은행주가 이미 2분기 실적 부진 등으로 낙폭이 과다한 업종에 속하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안정될 경우 은행주는 우리금융 민영화 이슈와 하반기 실적 개선 등으로 주식시장 반등시 outperform 할 여지가 있다고 전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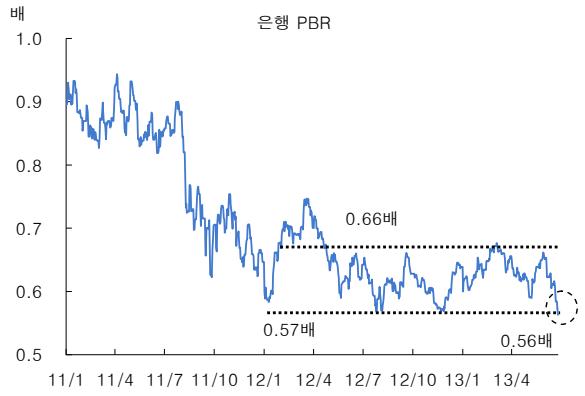
Top pick: BS금융, DGB금융

당사는 우리금융 민영화의 방법 가운데 우리금융(우리은행) 자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자회사들의 분리 동시매각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따라 지방은행의 유력한 인수 후보인 BS금융과 DGB금융을 은행주 Top pick으로 추천한다. 이들 종목은 2분기 실적도 시중은행들에 비해 양호하다.

우리금융은 우리금융 매각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단기 유망종목 그렇지 않으면 당장의 매력도는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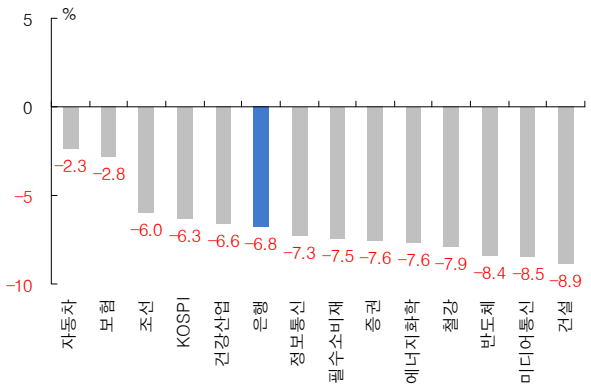
이에 따라 우리금융의 경우 매각 순서가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 보여 당장의 주가상승 여력은 가시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교보생명의 인수 참여 가능성이 높아진 부분은 우리금융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한다. 아울러 만일 우리금융 매각도 동시에 추진한다고 발표할 경우 우리금융은 단기적으로 상승여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도표 1. 은행주 박스권 하단 이탈



자료: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 최근 5영일간 은행주 부진 정도 중간수준



자료: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 **Compliance Notice**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 조사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조사자료는 투자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전일기준 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추천종목은 전일기준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 _향후 6개월 기준, 2008.7.1일 Trading Buy 등급 추가
적극매수(Strong Buy): KOSPI 대비 기대수익률 30% 이상
Trading Buy: KOSPI 대비 10% 이상 초과수익 예상되나 불확실성 높은 경우
매도(Sell): KOSPI 대비 기대수익률 -10% 이하
매수(Buy): KOSPI 대비 기대수익률 10~30% 이내
보유(Hold): KOSPI 대비 기대수익률 -10~10%